



장영설

- 신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제5기)
-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前) INOPLAN(이노기획) 이사

## I. 서문

스스로가 합격기라는 것을 쓸 자격이 되는지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의문이 들지만, 이 글을 보실 수험생 분들이 얼마나 힘든 길을 걷고 계시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외로운 발걸음에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자 부끄럽지만 이렇게 글을 씁니다. 특히나 법이라고는 1도 모르던 비법학전공자에서 4번의 도전 끝에 변호사가 되기까지 스스로는 ‘도전’이라고 말하고 싶은 저의 삶의 여정이 법학을 처음 접하여 변호사의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소위 장수생이라고 불리우는 N시 수험생 분들께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제 넘는 공부방법론을 펼치기 보다는 짧은 좌절의 경험을 통해 느낀 점과 이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공유함으로써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위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II. 문턱을 ‘제대로’ 바라보기까지

세상이 내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계획 없이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2008년, 옷을 좋아하여 친구와 함께 시작한 인터넷 쇼핑몰이 시대를 잘 탄 덕에 잘 되어 학업과 함께 작은 사업을 병행할 수 있었으나 2011년 사소한 법률적 문제를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 사업을 정리해야했습니다. 청춘을 바친 일을 자의와 상관없이 잃었다는 상실감과 함

게 내가 법을 몰라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조금은 감정적 판단으로 “내가 법을 알면 앞으로 이런 불행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로스쿨 진학을 결정하고 2년의 준비 끝에 2013년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생비법 (정치외교학전공)으로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무지했던 로스쿨 입학 시절, 단순히 학부때처럼 대학원 수업을 잘 따라가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지만 이는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법학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공부를 하다 보니 학교성적도 좋지 않았고 다가오는 변호사시험에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함만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초시에 실패하게 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시는 사실상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응시하게 되었고 이 역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시를 도전하며 두 번의 실패원인을 스스로 분석, 단순하게 민법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민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지만 결과는 민법은 고득점 하였으나 나머지 과목들의 점수 하락으로 3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학업을 이어온 과정으로 보았을 때, 제대로 된 계획의 부재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법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은 무엇인지, 변호사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되는 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물론 지금도 정확히 법학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라는 생각으로 우격다짐으로 학업을 이어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만약 로스쿨 진학을 희망 하시는 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

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판단이 어렵다면 주변에 계신 교수님, 고시 경험이 있거나 이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선후배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Ⅲ. 문턱 ‘앞’에서의 나 (멘탈 지키기)

많은 장수생들이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한해 한해가 지나면서 나이는 들고, 시험에 대한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실패 시 무엇을 해야 할지 등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생각이 많아지며 불안감을 많이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 이를 이겨내는 것 자체가 수험생활의 큰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33살에 나이에 3시에 실패하고 걱정은 점점 커져갔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등 여러 감정이 섞여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다보면 변호사시험 말고 취직 준비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이것 저것 알아보면서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택하였고 이를 공유하려합니다.

#### 1. 통계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자신감 회복하기)

실패의 경험이 쌓이다보니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점점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합격자명단에 저의 수험번호를 찾을 수 없는 경험을 3번이나 하다 보니 다음 시험에서 성공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고조 시키는 것이 바로 합격률이라는 통계였습니다. 자꾸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것이 두려워 무엇인가 찾아보게 되는데 나에게 긍정적인 자료 보다는 불리한 자료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점점 하락하고 더욱이 응시 횟수 대비 누적 합격률은 더욱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와 관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통계라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통계에 따른 합격률로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할지 말지 결정해야한다면 특히 장수생의 경우 일찍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는 과거의 결과에 대한 수치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자신이 통계라는 수치를 바꿀 수 있는 변수라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시험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것이므로 자부심을 갖고 통계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시거나 불안해하며 스스로 자신감을 하락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2. 아싸(아웃사이다)되지 않기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많은 분들이 시험에 실패하고 주변으로부터의 평가를 두려워하여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하실 부분일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의 감정상태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시길 추천 드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이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당신의 주변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하기 보다는 모두 응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시에 실패하고 방황의 시기를 겪으며 시험이 아닌 직장을 구해 일을 해야겠다고 결정했을 때쯤, 변호사인 친한 지인과 술 한잔 하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 살면서 그렇게 나가기 싫었던 술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미 몇 번을 거절했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이거 말고도 할 일 많을 것이다.” “나는 이미 늦었다.”라는 말을 하며 자책하고 있는 저에게 지인은 “33살에 변호사가 되는 것이랑 34살에 변호사가 되는 것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 너가 결정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나?”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있다 보니 부정적인 생각 밖에 할 수 없었고 인생에서 짧은 시간이라 볼 수 있는 1년이란 시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날 이후, 많은 친구들에게 먼저 다시 연락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통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불안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연락한 모두들 진심을 다하여 조언을 해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 시험을 경험한 분들과 대화를 한다면 시험에 얼마나 빨리 합격 했는지와 상관없이 이 시험의 힘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그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거나 비웃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상당히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즐기지 않는 분이라면 자신의 주변에 외로움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3. 시간과의 싸움 (잡생각 회피)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과의 싸움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여 사용하자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시 도전이라는 부담감과 방황의 시간들로 인해 공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며 불안감과 초조함은 더욱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할까라는 생각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불안감이나 초조함은 공부가 아닌 잡생각을 하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잡생각을 할 틈을 주지 말아야했고 그때부터 하루의 일과를 빈틈없이 분 단위로 꼼꼼히 계획을 하여 잡생각 할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상과 취침시간을 설정하고 어떤 공부를 얼마나 할 것 인가를 정말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이사이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담배를 피우는 시간까지 분단위로 정하여 무조건 계획대로만 움직이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을 이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익숙하지 않았으나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서 잡생각 할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사는게 정신적으로는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공부하거나 쉬는 시간 중간 중간 잡생각이 떠오르는 했지만 뒤에 할 일을 미리 정해 놓으니 이려고 있다가 뒤에 일을 못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최소한의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에게 있어서 시간과의 싸움은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잡생각을 할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보다 의지력이 좋은 분들은 스스로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잘 제어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으시다면 저처럼 계획

을 분단위로 꼼꼼하게 설정하고 마치 기계처럼 계획대로만 생활하신다면 잡생각에서 조금은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체력은 있어야 한다고 첨언합니다.

## IV. 문턱 넘어 가기 (나의 학업 전략)

### 1. 학업 계획에 있어서의 지향점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결과 민법 과목의 저득점으로 인해 불합격했다는 스스로의 분석을 토대로 민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결과, 제7회 변호사시험은 민법에서만 고득점을 하였고, 나머지 과목은 전반적인 하락으로 합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로 인하여 스스로가 설정한 학업계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었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8회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것이 각 과목 간의 밸런스 였습니다. 일부과목에 치중하기 보다는 전 과목을 빠짐없이 공부하기위해 공부시간도 각 과목의 배점에 따라 분배하였습니다. 또한 공부방법의 문제점을 인식하였기에 학원을 다니며 학원의 변호사시험 대비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계획과 공부 방법을 변화 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저처럼 오랜 시간 시험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의 공부방법을 찾지 못하시거나 문제점을 인식하신 분이라면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신촌의 위치한 M학원의 수업을 많이 수강하였습니다).

### 2. 전반적인 합격 전략

#### (1) 최대한 실전경험을 많이 하기

부지런히 써보는 것입니다. 원래의 저는 알

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얽매 집중하여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기본서를 붙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에서 답안작성 감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답안지에 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법전협 기출문제,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여 답안지 작성연습을 하였습니다.(학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제공되는 문제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전략은 조금씩 수정을 하였으나 이 전략만큼은 8회 시험 직전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사례형은 100점, 기록형은 50점 배점 기준으로 실제시험과 동일한 시험시간을 정하여 연습하였습니다.

참고로 답안 연습을 하며 다 사용한 펜을 버리지 않고 모두 모아 두었는데(펜은 Penel社의 Energel을 사용했습니다) 시험 전날 수북히 쌓인 다 쓴 펜을 보면 나도 모를 성취감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2) 시험 전에 볼 자료를 미리 준비하기

그 동안의 경험을 보았을 때 시험을 한 달여 앞 둔 시기에 공부 능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험은 다가오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을 하다가 버리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러다보니 기운이 빠져 온전히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8회 시험을 대비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미리 시험 직전에 볼 자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서 단권화 하기 좋은 핸드북을 선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취약한 부분은 체크하는 형

식으로 계속 준비하였고 12월에는 답안 작성 연습 및 선택형 풀이 이외의 시간은 단권화 책의 회독수를 늘려 낭비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 (3) 한눈팔지 않기(지엽적인 쟁점에 빠져들지 않기)

시험을 준비하는 안 좋은 유형에 꼭 들어가는 것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 쟁점에 함몰되어 시간을 낭비하는 유형입니다. 제가 바로 그 유형이었습니다. 내공이 부족하다보니 중요쟁점과 그렇지 않은 쟁점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고, 중요치 않은 쟁점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그 쟁점에 집중하며 중요 쟁점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변호사시험의 회차가 늘어나며 사실상 시험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중요하지 않은 쟁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맞는 말이나,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요한 쟁점을 하지 않으면서 너무나 지엽적인 쟁점에 함몰되는 것을 조심하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만큼은 학원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학원 강사님들이 중요쟁점이라고 체크해 주시는 부분 위주로 보려고 노력했고 그 와중에도 지엽적인 쟁점을 보고 싶은 욕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 올 때면 최대한 자제하며 중요 쟁점을 위주로 학업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 3. 유형별 학업 계획

전과목의 유형별 학습 전략은 동일하게 가져갔으므로 과목에 상관없이 유형별 학업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선택형**

선택형의 경우 많은 시험을 거치며 제가 맞출 수 있는 문제의 최대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던 상황이어서 선택형에 시간을 더욱 투자하여 정답문제수를 늘리는 것보다 원래의 정답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오전시간을 선택형 학습에 할애하였으며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최근 3개년) 기출 문제, 일부과목은 사법시험 기출 문제(최근3개년)를 풀며 틀린 문제 또는 정확히 모르고 풀었던 문제를 표시하고 다음번 회차때는 체크한 문제 위주로 풀며 회독수를 늘렸고 오전시간 이외에는 선택형 학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사례형**

사례형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답안 작성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변호사시험기준 100점의 배점 문제를 1시간 내로 풀고 나뉠 스스로 답안 채점을 하였습니다. 쟁점의 내용은 알고 있으나 해당 쟁점이 나왔는지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예상 쟁점들의 제목 자체를 외우는데 신경을 많이 썼으며 소위 A급 쟁점이라고 불리우는 쟁점 중 기출 되지 않은 부분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식으로 연습하였습니다.

**(3) 기록형**

기록형은 학원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신정훈변호사님(민사법), 김정철변호사님(형사법), 강성민변호사님(공법)이 진행하시는 기록실전 연습과목을 수강하며 기출문제와 변호사님이 직접 만드신 문제들로 연습하였습니다. 특히나 일요일 변호사시험과 똑같은 배점과 시간으로 문제풀이 연

습을 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며 실전처럼 기록형 시험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으므로 기록형에 약점을 갖고 계신 수험생이시라면 학원의 기록연습 강의를 수강하시어 억지로라도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4. 과목별 학업 계획**

기본적으로 학업 계획부분에서 학원에 도움을 받다보니 일정기간은 한 과목에 집중하고 끝나면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학습하였습니다. 각 과목마다 치우침 없이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격을 위해 전략과목이 적어도 2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민사 기록형과 선택과목(환경법)을 전략과목으로 설정 고득점을 위해 다른 과목보다 조금 더 시간을 투자 하였습니다.

**(1) 민사법**

민법과 민사소송법 모두 신정훈 변호사님의 수업을 들으며 공부하였습니다. 기록수업으로 유명하시다고 했는데 기록수업 뿐만 아니라 사례수업에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민사의 경우 저에게는 공부범위를 좁히고 분량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민사 공부량의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단권화 교재는 신정훈 변호사님의 '민법의 압축' 과 '요건사실론'을 이용했으며 로스쿨 재학시절 박시환교수님(前대법관)이 정리해주신 민사소송법자료도 활용하였습니다.

**(2) 상법**

강성민 변호사님의 '상법 엑기스' 교재를 단권화 교재로 선택하여 쟁점 정리를 하였으며

장원석 변호사님의 진도별모의고사 자료와 이정엽 변호사님의 진도별모의고사 자료를 구입하여 문제풀이에 집중하였습니다.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음수표법의 경우에는 자세히 공부하지는 못하였지만 주요쟁점들은 정신건강을 위해 따로 정리하여 모두 학습하였습니다.

### (3) 형사법

형법은 오로지 김정철 변호사님의 수업과 교재들로 학습하였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최신판례에 대한 적용이 빠르시고 문제화를 통해 익힐 수 있게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쟁점의 답안지 현출을 위한 암기를 중요시 하셔서 형사법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항상 시간이 부족하여 고생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4) 헌법

차강진 박사님의 work book으로 기본적인 학습을 하였고 단권화는 강성민 변호사님의 헌법엑기스 핸드북으로 하였습니다. 기록형 학습은 김영순 교수님의 교재와 강성민 변호사님의 공법기록 엑기스로 학습하였습니다. 특히 강성민 변호사님의 기록연습 수업을 수강 하였는데 쟁점이 많고 어려운 편이지만 실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5) 행정법

선택형의 경우 박도원 박사님의 핵심지문 총정리 교재와 수업으로 준비하였고 사례형의 경우 정선균 박사님의 행정법판례연습 교재와 수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박도원 박사님의 경우 행정법 공부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행정법의 개념과 판례적용은

정선균 박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단권화는 정선균 박사님의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으로 하였습니다.

### (6) 선택과목(환경법)

학업 계획을 설정하면서 선택과목을 언제 얼마나 배치해야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요일 점심이후가 가장 공부가 안 되는 시간이어서 비교적 부담이 적은 환경법 공부를 일요일 점심이후부터 취침 전까지로 설정하여 시험 1주일 전까지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단권화 교재는 핵심정리 환경법 (학연출판사)으로 정하였고 최신판례와 누락된 쟁점들은 따로 검색하여 보충하였습니다. 답안작성 연습은 기출문제로 하였고 특히 국가법률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시험범위에 있는 법률과 시행령을 출력하여 조문을 꼼꼼히 보았습니다.

## V. 문턱을 넘어 돌아보기

“성공한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후에 포장되어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라는 하상욱 시인의 이야기를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며 합격기를 작성하였습니다.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되돌아 보면 시험을 준비하는 내내 너무나 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는 혼자만의 싸움을 잘 견디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러한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끝임 없이 방황하고 힘들어 하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속에 이러한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나를 성장 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누군가는 ‘정신승리’하는 것 아니냐

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승리면 좀 어떻습니까? 목표로 한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라도 승리하면 그나마 스스로 위로가 되고 조금이나마 공부할 '맛'이 나실 겁니다.

글을 마칠 때가 되니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생각납니다.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부모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심양면으로 합격만 하라고 많은 도움을 준 INOPLAN(이노기획)의 정민철 대표이사님, 못난 친구 기죽지 말라고 응원해준 윤진석, 김경민, 박충신, 안성용, 최도연, 손상락, 박태연, 고지훈, 박민수, 권혜진, 그리고 처음으로 법학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김정환 변호사님, 민법 바보를 사람 만들어 주신 신정훈 변호사님, 눈치 살살 보며 술마실 기회만 노리던 윤필상 변호사님, 제 합격 기다리다 병난 김병준 변호사님, 공부안하고 몰래 놀다보면 꼭 걸리게 되는 김택현 변호사님,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 준 최형승 변호사

님, 합격 소식에 자기 일처럼 기뻐한 장정훈 변호사님과 임한결 변호사님, 외롭지 않게 챙겨주신 김지예 변호사님과 이아람 변호사님, 동생 응원하느라 고생하신 우동형 변호사님, 전형호 변호사님, 이창민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 밖에도 문턱을 넘기까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사람 만들어 주신 많은 은사님,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지면관계상 줄임을 이해해 주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내내 저의 옆자리를 지켜주신 선릉 네일원의 박가빈 원장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특별히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준비하며 저를 무너지지 않게 했던 질문을 공유하려 합니다. 이 공부를 시작하신 모든 분들은 한번쯤 “나는 어떤 변호사가 될까?” 라는 질문에 혼자 답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힘든 공부를 하시면서도 그 질문에 계속 답을 해나가시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턱만 넘으면 자신이 답한 모습의 변호사가 되어 있으실 테니까요.